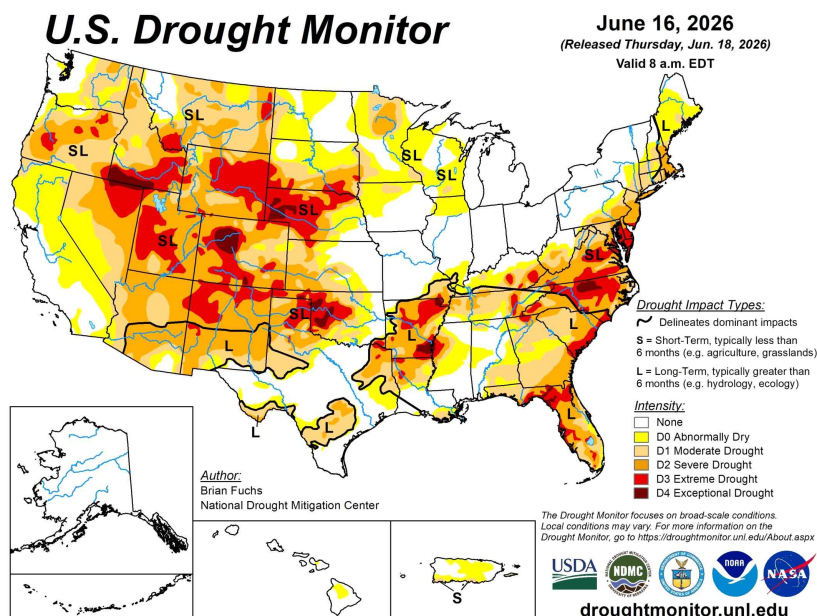


6월 23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13, No. 25)

□ 미국 기후 현황(2026/6/14-2026/6/20)

열대폭풍 아서(Arthur)는 6월 17일 텍사스 중부 해안 부근에서 잠시 형성된 뒤, 몇 시간 후 진로가 흔들리며 켈버스턴 인근으로 상륙했다. 그러나 그에 앞서 형성된 저기압계가 텍사스 남부 일부 지역에 많은 비를 내렸고, 뒤이어 열대폭풍이 지나간 후 걸프만 중부 해안 지역에서 남동부 남부에 이르는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 미국 최남부 전역에서는 총강수량이 대체로 4~8인치 이상을 기록했으며, 몇몇 지점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비가 관측되었다. 돌발홍수와 저지대 침수가 발생했지만, 최근까지 남부 전역을 뒤덮었던 가뭄으로 인해 전반적인 피해는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 더 북쪽에서는 일련의 한랭전선이 간헐적인 소나기와 뇌우를 발생시켜 국지적으로 강풍과 우박 피해를 초래했지만, 중서부 여름작물을 위한 토양 수분 비축량은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대평원에도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렸지만, 지속된 가뭄의 영향으로 방목지와 목초지, 여름작물의 상태는 지역마다 차이를 보였다. 한편, 대평원에서는 가뭄의 영향을 받은 겨울밀이 평년보다 빠르게 건조되면서, 소나기가 잠시 그친 사이 수확 작업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미국 서부에서는 남서부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내린 것을 제외하고는 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졌다. 서부 지역에서는 고온으로 관개용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며, 산불 위험도 넓은 지역에서 높아졌다. 이 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산불 가운데 하나인 유타주 유레카 인근의 아이언 산불은 6월 19일 발생해, 초지와 차파랄 관목지 2만 에이커 이상을 빠르게 태웠다. 주간 평균기온은 서부에서 평년보다 5~10° F 까지 높았지만, 네브래스카주와 다코타 지역에서 동쪽으로 오대호 남부 지역에 이르는 곳에서는 평년보다 5~10° F 낮았다. 대서양 연안 지역의 따뜻하고 습한 날씨를 제외하면, 미국 중부와 동부의 나머지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이 나타났다.



□ 농업 현황 요약(2026/6/15-2026/6/21)

기상 조건이 미국의 주요 농업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미국 서부 대부분 지역은 기온이 평년보다 높아서 소립곡물의 출수를 앞당겼다. 평년보다 서늘한 조건이 북부 평원, 중서부 북부, 오하이오 계곡 전역으로 확대되어 기온이 평균보다 2~8° F 낮았다. 한편, 남부와 남동부 전역에서는 강수량이 평년보다 많았으며, 일부 지역에는 평년 주간 강수량의 두 배를 넘는 비가 내렸다. 오하이오 계곡과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도 국지적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 토양 수분 프로파일도 개선되었다. 서부와 대평원 대부분 지역에서는 건조한 날씨가 계속되었으며, 여러 주에서 토양 수분이 부족하거나 매우 부족한 지역의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세계 기후 현황(2026/6/14-2026/6/20)

■ 유럽:

광범위하지만 지역별 편차가 큰 소나기와 뇌우가 생식기 후반에서 등숙기에 있는 겨울작물과 아울러 영양생장기의 봄철 곡물과 여름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을 더욱 증가시켰다. 다만, 강해지는 폭염이 스페인과 프랑스에 걸쳐 북동쪽으로 확대되었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한 쌍의 약한 한랭전선이 대륙 북부와 동부를 통과하면서, 잉글랜드와 프랑스 북부에서 동쪽과 남동쪽에 이르는 지역에, 강수량의 편차가 매우 컸지만, 광범위한 소나기와 뇌우(2~40mm)를 발생시켰다. 이전에 건조했던 유럽 북서부와 북동부에서는 수분 공급 상태가 계속 회복되었고 독일에서 남동쪽으로 그리스와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등숙기 후반의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과 아울러 영양생장기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에 필요한 수분 공급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한편, 점차 강해지는 폭염은 스페인에서 북동쪽으로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서부까지 확대되었으며, 앞서 언급한 지역의 낮 최고기온은 섭씨 30도 중후반에 이르렀다. 높아지는 기온이 겨울작물의 빠른 건조와 수확에는 유리했지만, 옥수수가 평균보다 1~2주 일찍 생식생장 단계로 접어들게 했다; 주말 무렵에는 이탈리아 북부 포강 유역에서 옥수수가 이미 수꽃이삭의 출현기에 들어갔다. 반대로 폴란드에서 발칸반도에 이르는 지역에서는 토양 수분이 양호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할 만한 고온도 나타나지 않아, 영양생장기의 옥수수, 해바라기, 대두가 양호하게 생육하고 있었다.

*프랑스와 헝가리의 지상 기상관측소 자료는 누락되었거나 신뢰성이 의심되었으며, 분석을 보완하기 위해 레이더와 위성 자료를 사용했다.

■ 구소련(서부):

상층 저기압이 지역을 가로질러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강수량의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소나기와 뇌우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몰도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의 주간 강수량은 총 2~30mm였으며, 러시아 서부 대부분 지역에서는 이보다 많은 10~50mm의 비가 관측되었다. 그 결과 등숙기에서 성숙기에 이른 겨울작물, 영양생장기에서 출수기에 이른 봄철 곡물, 그리고 영양생장기의 여름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 상태는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지역 서부 절반에서는 평년보다 서늘한 날씨가 나타나 기온이 평년보다 최대 2° C 낮았으며, 더 동쪽으로 갈수록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은 기온으로 이어졌다.



■ 호주:

폭풍계와 이에 동반된 한랭전선이 대륙을 가로질러 천천히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광범위하게 유익한 비를 내렸다. 서호주의 주요 겨울작물 재배 지역에는 총 10~40mm의 비가 내렸으며, 주 남부 해안선을 따라 위치한 남부 유채 재배 지역에서는 더 많은 강수량인 총 25~125mm가 관측되었다. 남호주에서 빅토리아주와 뉴사우스웨일스주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서도 10~85 mm의 중간에서 많은 수준의 소나기가 관측되었다. 이와 별도로 상당한 비가 내린 지역이 퀸즐랜드주 남부에서 남동쪽으로 뉴사우스웨일스주 동중부까지 이어졌으며, 강수량은 10~45mm였다. 그 결과 앞서 언급한 지역에서는 출현기에서 영양생장기에 있는 겨울 곡물과 유지작물에 필요한 토양 수분 공급 상태가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지만,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강수량이 5mm 이하에 그친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동부에서는 장기간 지속된 가뭄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서호주에서는 기온이 평년보다 서늘해서 평년 대비 최대 3° C 낮았던 반면, 호주 남동부에서는 평년보다 3~6° C 높은 기온이 나타났다.

■ 동아시아:

광범위하게 내린 유익한 비는 지역 전역에서 여름작물의 생육을 뒷받침했으며, 작물들이 주요 생육 단계를 거치는 동안 양호한 토양 수분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강수는 대체로 고르게 분포했지만, 일부 지역에는 비가 거의 또는 전혀 내리지 않아(10mm 미만) 토양 수분의 개선이 제한적이었다. 그 밖의 대부분 지역에서는 강우량이 10~100mm를 기록했으며, 중국 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비가 내려 국지적으로 200mm를 초과했다. 이러한 강우 현상은 연중 이 시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지만, 저지대 논의 단기간 침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여전히 면밀한 관찰이 필요하다. 물에 장기간 잠길 경우 생육 중인 벼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피해를 볼 수 있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도 소나기가 자주 내려서(10~100mm, 국지적으로 최대 250mm) 벼, 옥수수, 대두 및 기타 여름작물에 적절한 시기에 수분을 공급했다. 지역 전역의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평년보다 높았으며, 낮 최고기온은 대체로 섭씨 20도 후반에서 30도 중반을 기록했다. 이러한 기온은 수분이 충분한 지역에서는 작물의 활발한 생육을 뒷받침했지만, 강수량이 적었던 지역에서는 증발산 수요를 증가시켰다.

■ 아르헨티나:

자료없음

■ 브라질:

자료없음